

아그파

에스코 신문부문 인수

아그파는 최근 에스코그래픽스의 신문분야 관련 사업을 인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이프라(IFRA) 엑스포2003의 오프닝에서 에스코그래픽스와 아그파계바트는 앞으로 에스코그래픽스의 DMX 플레이트세터와 에스코넷 워크플로우 소프트웨어의 고객 지원 및 판매와 관련한 모든 사업을 아그파가 인수한다고 밝혔다.

에스코그래픽스는 연초에 상업인쇄와 패키징 시장에서의 핵심 비즈니스에 전념하고 신문사 시장 및 기타 영역 활동에 대한 비즈니스 철회에 관한 전략을 밝힌 바 있다.

양사의 합의와 관련하여 에스코그래픽스의 DMX플레이트세터 기술지원팀 및 에스코넷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팀 등 총 20여명이 아그파로 편입된다.

아그파의 비즈니스 개발 부문 부사장인 에티엔 반 담 씨는 "아그파는 신문사 시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바, 에스코그래픽스의 DMX와 에스코넷의 명성과 고객이 아그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앞으로 DMX 고객은 아그파를 통해 한시적으로 추가 주문을 할 수 있으며, 아그파는 전 세계 모든 고객들에게 지원, 서비스, 부품을 공급하게 된다. 그리고 에스코넷의 다음 버전(version 2.1)은 아그파의 워크플로우 시스템에 통합될 예정이다.

하이델베르크 UV 시스템 출시

하이델베르크는 최근 인스턴트스타트UV 시스템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

혔다. 이 제품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으로 UV 인쇄기의 생산성을 최대 25%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는 많은 UV 인쇄인들은 매시간 마다 블랭킷 세척을 1~2회 정도 해야만 했다. 인스턴트스타트UV는 평균 25%까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UV 램프를 보호, 수명연장으로 서비스 횟수를 줄이게 할 뿐 아니라, 세척하는 동안 스위치를 끄는 수고 역시 덜게 되었다.

이 인스턴트스타트 UV는 스피드마스터 SM52, CD74와 CD102 UV 모드에서 대기 시간 없이 블랭킷을 세척하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역시 세척이 끝나는 즉시 재개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안전성의 문제로 세척 전에 건조기를 냉각시키는 시간과 세척 후에 방출물을 배출하기 위해 대기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건조기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어져 최대 8분까지 세척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압통 실린더를 위한 세척과 대기시간 역시 감소되었다.

또한 인스턴트스타트 UV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형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하이델베르크의 서비스 기술자들이 사전에 인쇄기에 필요한 전환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스턴트스타트 UV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이델베르크의 드라이스타 UV 혹은 IST Metz GmbH 사의 UV 건조기가 필요하다. 이 건조기들은 반드시CANopen link를 장착하고 있어야 하며 인쇄기는 모든 세척액을 연소점인 55℃를 초과하는 야채 기름을 기반으로 한 세척액을 사용해야 한다.

크레오

환경 · 품질관리 인증획득

프리프레스 솔루션 공급업체인 크레

오는 최근 모든 설계와 제조공정이 품질 매니지먼트의 국제표준규격인 ISO 9001:2000과 환경 매니지먼트시스템의 국제표준규격인 ISO14001:1996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ISO의 인증취득은 품질관리와 함께 환경보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는 크레오의 기업자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었다.

크레오는 캐나다와 이스라엘에서 디지털 프리프레스시스템과 디지털 인쇄시스템의 설계와 개발을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에서는 이번 품질 매니지먼트시스템의 국제표준규격 ISO9001:2000의 인증을 취득한 것과 함께 환경 매니지먼트시스템의 국제표준규격 ISO14001을 이스라엘의 표준화협회 심사를 통해 갱신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이스라엘보다 빨리 ISO 인증을 취득했다.

도넬리

북미 최대 인쇄사 발돋움

미국의 인쇄업체 도넬리앤선즈는 지난 11월9일 무어 웨일리스를 주식교환의 형태로 28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보도했다. 이번 합병 결정에 따라 도넬리는 무어 웨일리스의 인수를 통해 연간 인쇄 매출80억달러 규모로 북미 지역 최대의 인쇄업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사의 합병 후 시장점유율은 연간 1600억달러 규모의 상업용 인쇄 시장에서 5% 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양사의 합병 동의서에는 무어 웨일리스의 최고경영자 마크 A. 앤젤슨이 현재 도넬리의 최고경영자 윌리엄 L. 데이비스의 퇴임 이후 합병 회사 경영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도넬리의 스티븐 M. 울프 이사가 비상임 이사직을 맡을 예정이다.

아그파재팬

IGAS후 CTP 대거 판매

아그파재팬은 최근 IGAS2003에서 팔목할 만한 영업성과를 거두어 전시회를 통해 일본에서만 30대 이상의 CTP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IGAS2003 기간 동안 아그파재팬은 아그파의 통합 테크놀로지 솔루션, 워크플로우의 자동화, CTP, CTF, 스크리닝과 교정기를 선보였었다.

또한 IGAS 기간과 전시회 이후, 빠른 영업 신장을 보여 상업용 CTP 장비의 경우 전 종류의 CTP가 골고루 판매되었으며, IGAS2003에 새로 런칭된 Avaxis 필름출력기도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러마티니

빠른 속도로 고객 감동

덴마크 소재의 전문 제본업체 헨드릭센&선a/s는 물러마티니 'VBF디아만트'의 빠른 속도에 힘입어 양장라인을 통해 하루에 5만권의 책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의 하루 생산되는 총량은 두대의 코로나C18 무선철 제본라인에서 생산되는 50만권의 잡지와 카탈로그, 고속 CT150 케이싱-인 라인에서 생산되는 15만권의 아동도서 등을 포함, 총 65만권에 달한다.

사업주 크리스티안 헨드릭센은 "제본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모든 생산공정이 반드시 끊임없이 서로 연결돼야 한다"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로서 물러마티니의 빠른 속도는 우리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1890년에 설립, 4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이 회사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분야를 카탈로그, 무선제본, 하드커버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운용

하고 있다.

헨드릭센 사장은 "각각 3개 비즈니스 분야는 정확히 회사 매출의 1/3씩을 올리고 있으며 명확하고 계획적인 분리를 통해 효율적인 제품 생산, 비용 절감, 납기일 준수를 잘 지켜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메리칸스피릿

선데이4000 운전기 도입

미국 미네아폴리스의 아메리칸스피릿그래픽스는 2004년 초 하이텔베르그 선데이4000 운전기를 처음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하이텔베르그는 이 계약이 1993년에 '캡리스 블랭킷 기술'을 발표한 이래 200번째의 선데이 운전기 판매 실적이라고 밝혔다.

4개 유닛으로 된 이 선데이4000은 66인치 운전 넓이와 35인치 실린더 크기를 특성으로 한다. 하이텔베르그는 이 인쇄기를 완전 자동 콘티웍 FMR 스플라이서와 칠 롤러와 PFJ-3 핀리스 접지기가 통합된 에코콜 건조기를 부착해 공급할 계획이다.

아메리칸스피릿그래픽스는 DM과 제품광고를 특성으로 하고 있으며 선데이4000 운전기를 통해 목표 시장의 적극적 공략을 위해 생산용량과 속도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아메리칸스피릿그래픽스의 다렌 칼슨 최고경영자는 "캡리스 기술과 두배 크기의 실린더 포맷의 높은 페이지 매기기 작업을 통합함으로써 고품질, 높은 생산 속도, 신속한 작업준비, 인쇄 용지 절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반자동 플레이트 변환과 오픈 콘 제어시스템을 포함한 주요특징은 과거에 대형 포맷 인쇄기들이 달성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경제적이고 신속한 버전 변화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

대된다.

듀프로

미국시장에 듀토 출시

최신의 디지털 제본 전문업체 듀프로코퍼레이션은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소재의 엑스플로(Xplor)를 통해 오프셋 및 디지털 인쇄의 요구사항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듀토(Duetto)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두 개의 DC-10/60 콜레이터와 DSF-2000 다이내믹 매엽기를 장착한 혁신적인 제품인 듀토는 컬러 콘텐츠와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는 듀얼-라인 인쇄 제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첫 제품이다.

듀프로의 마케팅 분야 도미닉 케넬 부사장은 "엑스플로는 듀토를 미국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다. 점점 더 많은 디지털 인쇄업체들이 디지털 제본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듀토가 두 가지 인쇄환경을 매끄럽게 운영함으로써 많은 오프셋 인쇄업체들은 오프셋과 디지털 솔루션을 통합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듀얼-라인 기계와 관련, DSF-2000 다이내믹 매엽 급지기에 대한 의문사항을 가졌는데 이는 디지털 인쇄 제본 시스템에서 듀토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이 제품은 듀프로코퍼레이션의 모듈라 인쇄 제본용으로 개발된 것으로 DF-915 및 DF-920 접지기, DB-200 바인더, 북클렛메이커를 조작용 DBM-120과 DSF-2000 다이내믹 급지기, 팬 폴더 팩 생산을 겨냥한 물러마티니의 장치가 장착된 DBM-4000 북클렛메이커 등이 채용됐다.

〈윤재호 부장·조갑준 기자〉